

보도시점

2026. 8. 4.(화) 11:00
2026. 8. 5.(수) 조간

배포

2026. 8. 4.(화) 06:00

농식품부, 폭염·가뭄 관련 지방정부의 농업인 안전 및 농업시설 특별점검 추진

- 한국농어촌공사, 농협과 합동점검반을 구성, 전국 시군의 농업인 안전을 위한 대응 상황 및 하우스·축사·저수지 등 농업시설 일제점검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폭염과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8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 확보, 가축 폐사방지 및 수리시설 관리 등 대응 상황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특별점검반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, 농협과 합동으로 136개반 400여명으로 구성하였으며, 전국 시·군의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추진 방안과 원예(시설하우스, 과수원), 축산 및 가뭄 급수시설의 폭염·가뭄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한다.

특별점검반은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마을방송, 차량을 활용한 예찰 및 가두방송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, 시설하우스의 환기·차광 시설과 모터펌프 등 수분관리 시설 및 과수원에 대한 관수시설 작동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.

또한, 축사는 사육 환경온도를 낮추기 위한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 및 그늘막 설치, 송풍팬, 쿨링 패드 등 냉방장비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며, 가뭄에 대응하여 하천수 이용 저수지 물 채우기, 하천 바닥 굴착, 급수차 동원 및 양수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.

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, 특히 농업인 안전을 위해 영농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농업정책에 즉시 반영할 계획이다.

김정옥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“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인 및 농업시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유관기관,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, 특히 농업인 안전을 위해 관련 기관·단체와 함께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농업정책관실 농업재해지원팀	책임자	과 장	최종순 (044-201-2871)
		담당자	사무관	안광현 (044-201-2872)

